

Special Edition 3

식민지와 분단을 온몸으로 거부한 한 여인의 육필회고록, 『장강일기』

글. 조철행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전문관)



압록강을 넘기까지

1987년 '여자독립군 정정화의 낮은 목소리'라는 부제목을 달고 출간된 『늑두꽃』(미래)에 날짜 오류 등의 간단한 수정을 거쳐 1998년 재출간된 『장강일기』(학민사)는 일제 식민지시기 민족해방운동에 투신했고, 8·15이후 민족분단 과정에서 민족의 완전한 통일을 지향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정정화의 육필회고록이다. 긴 강이라는 뜻의 장강은 양자강의 원래 이름으로 정정화가 26년간 임시정부와 함께 한 독립운동의 긴 고난의 행로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1920년 초 장강의 하구인 상해에서 출발해 1932년 4월 윤봉길의거 뒤 가흥, 남경, 장사, 광주, 유주, 기강을 거쳐 1940년 9월 중정에 정착한 뒤 1946년 상해를 거쳐 귀국할 때 까지 장강과 함께 했다.

정정화는 정주영과 김주현 사이에 2남 4녀의 셋째 딸로 1900년 8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정정화의 아이 때 이름(초명)은 정묘희였고, 정정화는 상해에서 개명한 이름이었다. 그녀는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뜻의 수당(修堂)이란 호를 썼는데 이를 평생의 삶의 지표로 삼았다.

그녀의 할아버지 정낙용은 1855년 무과에 급제한 뒤, 삼도수군통제사·농상공부대신·병조참판을 역임했다. 아버지도 무과에 급제한 뒤, 전라도도 수군절도사·병조참판·경기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2대가 판서를 지낸 권세 있는 집안이었다.

그녀는 명문가 집안에서 귀하게 자랐지만, 보수적인 부친은 여자인 정정화를 교육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 몰래 오빠를 따라 서당에 다니며 천자문·소학 정도를 배우는데 그쳤다. 할아버지가 자기 살아생전 손녀가 시집가는 것을 보겠다고 해 정정화는 만 10살 되던 1910년에 안동김씨 집안으로 출가했다.



02 정정화 여사 가족사진 : 남편 김의한과 아들 모습
©독립기념관



01 『장강일기』(학민사, 1998) : 정정화 여사 일대기를 구술하여 발간한 것으로 임시정부 생활사가 오롯이 기록되어 있다.

동갑내기 남편인 김의한은 대한제국의 농상공부대신·경상도 관찰사·대한협회 회장·조선민족대동단 총재 등을 지낸 김가진의 셋째 아들이었다. 김의한은 집에서 한학을 공부하다, 1914년 대동보통학교와 1917년 중등학교에 들어가 신학문을 배웠다. 이때 정정화는 남편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였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얻었으며 우리나라도 독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국제정세, 독립의식을 일깨우게 되었다.

김가진은 1919년 3·1운동 일어난 뒤, 그해 5월 조선민족대동단 총재로 추대되었다. 최익한·권태석·정남용 등이 조직한 대동단은 조선의 영원한 독립, 세계의 영원한 평화 등을 강령으로 한 비밀결사 독립운동단체였다. 대동단 재정부장을 맡아 운영자금 3만원을 지원한 큰오빠 정두화 등 주도자들이 체포되자, 김가진은 김의한을 데리고 10월 30일 상해로 망명했다. 정정화는 시어머니가 건네 준 신문을 보고서야 시아버지와 남편이 중국 상해로 간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정정화는 아버지와 상의한 끝에 자신도 상해로 가 시아버지를 모실 것을 결심했다. 1920년 1월 초 서울역을 출발해 의주를 거쳐 압록강을 넘어 1920년 1월 중순 상해에 도착했다. 그녀의 장강일기는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며 시작되었다.

임시정부와 함께 한 26년, 민족의 완전한 통일을 위한 삶

임시정부와 함께 한 26년 동안 항상 곁에는 평생의 동지이자 남편인 김의한이 있었다. 김의한은 상해로 망명한 뒤 임시정부와 직간접으로 연락을 맺고 있었으며, 1925년 밀정과 친일파 처단을 목적으로 한 한혈단에서 들어갔다. 이후 1928년 중국북부한인청년동맹 상해지부 재정위원, 1932년 임시정부 선



03 임시정부 가족들 :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정정화 여사이다. 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임시정부 요인들인 이동녕, 박찬익, 김구, 엄항섭 선생이다. ©독립기념관

전위원회 선전위원, 1940년 한국광복군사령부 주계, 1941년 임시정부 외교부 부원, 1945년 광복군 조직훈련과장 등으로 활동했다.

장강일기는 크게 3시기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첫째, 그녀가 대한민국임시정부 특파원으로 독립운동자금의 모집과 연락을 위해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세 차례 국내를 왕복하고, 1922년부터 1931년까지 또 세 차례 사적인 일로 국내를 왕래하던 시기이다. 상해에 도착한 그녀는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안창호·이시영·이동녕·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임시정부 요인들이 끼니도 거를 정도의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예전부터 큰 오빠 정두화와 친구로 지내던 법무총장 신규식을 찾아가 국내로 들어가 자금을 구해오겠다고 제안했다. 신규식은 자신의 지시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정정화는 임시정부의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특파원이 되었다.

임시정부 특파원은 1919년 설립된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 독립자금모집, 국내외 연락, 선전,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도 임시정부 교통국을 이용해 1920년 3월 초순 상해를 출발 안동교통사무국을 통해 국내로 들어가 자금을 모집해 4월초 돌아왔다. 상해 귀환 시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안동에

이르는 행로는 “신발을 벗어두고 진흙과 자갈이 섞여 펼쳐진 강변을 따라 맨발로 삼십 리 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목숨을 건 길이었다.

1921년 두 번째 특파는 기대한 만큼의 자금을 모집하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 등을 가지고 돌아왔다. 1922년 6월 특파 때는 연통제도 일제 경찰에 들어나 붕괴된 상황이었고 임시정부 요인들도 모두 만류하였다. 조완구가 ‘일신(一身)이 모두 담(膽)’이라고 한 성격을 가진 정정화는 만류를 뿌리치고 안동에서 인력거로 압록강을 넘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일제는 김가진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독립운동 혐의를 찾지 못해 그녀는 풀려났다. 이때 서울에서 시아버지 김가진이 1922년 7월 4일 서거했다는 부음을 받고 호상소를 차려 조문객을 받았다. 상해로 가지고 들어온 조의금은 독립운동자금이 되었다.

1922년 10월, 1924년 12월, 1930년 7월 세 차례 사적인 국내 왕래에서 아는 사람들도 그녀를 피하는 비참한 현실을 겪으면서 1931년 상해로 돌아가면서 독립이 되기 전에는 다시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 시기 본격적으로 민족해방운동에 뛰어들 정정화는 일제경찰에 체포, 시아버지의 사망 등을 겪으며 임시정부의 민족해방운동노선이 무장독립보다는 제국주의의 국제회의에 독립을 청원하는 외교운동에 치우치면서 약화되어 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둘째 시기는 윤봉길의거가 있는 뒤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가흥·항주·남경·장사·광주·유주·기강·중경 등으로 임시정부가 이동할 때마다 거의 행로를 같이 했다가 1946년 5월 귀국할 때까지이다.

일제는 1931년 9월 18일 만주를 침략한 뒤 이듬해 1월 28일에는 상해도 침공했다. 그리고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虹口)공원에서 일왕의 생일날에 맞추어 ‘승전축하식’을 거행했다. 이날 1931년 12월 김구가 일제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조직한 한인애국단의 단원 윤봉길이 식장에 폭탄을 던져 상해파견군사령관 육군대장 등을 처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중국 국민당 정부와 중국인은 상해사변의 결과 1932년 3월 4일 일제와 맺은 굴욕적인 휴전협정을 국치일로 여길 정도로 충분히 여겼는데, 윤봉길의거는 “4억 중국인이 해내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한국인 한 사람이 해냈다”는 장개석의 격찬을 받았다. 아울러 이 의거는 중국 정부가 직간접으로 한국독립운동의 물질적 지원을 하게 했고 일제의 탄압을 피해 임시정부가 중경까지 8년에 걸쳐 5000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대장정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때 정정화는 1935년 한국국민당 당원, 1940년 한국독립당 생계위원회 위원과 대한애국부인회, 한국혁명여성동맹 간사(조직부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1940년경 중경 조선민족혁명당 등 좌익진영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면서 임시정부로 통합을 이루어 갔다. 이러한 통합으로 각 당파의 여성들이 통일을 이루어 결성한 것이 대한애국부인회였다. 대한애국부인회는 국내의 부녀는 중단결하여 민족해방운동과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신공화국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분투하지는 강령을 내걸었다. 당원의 대부분이 한국독립당원이기도 한 한국혁명여성동맹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후원하였다.

이와 같이 정정화는 독립운동 단체에서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중경시내에 있는 임시정부나 광복군에서 외국손님을 접

대한다든가, 자체 내에 큰일이 있거나 할 때는 토교(土橋)에 있는 부인들이 중경으로 가서 일을 돕곤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총 책임을 지고 일을 치러야 했다.(193쪽)” 정정화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집안을 돌보던 역할에서 이제 임시정부의 실제 안살림을 뒷바라지하는 책임자가 되었다.

한편 이 시기 정정화는 냉철한 국제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해방운동전선의 완전한 연합과 독립전쟁만이 주체적 역량으로 민족해방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실천했다

마지막 시기는 귀국 후 미군정기와 단독정부수립, 6·25전쟁, ‘부역죄’로 감옥살이 등을 겪으면서 민족의 완전한 통일을 지향했던 시기이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선거에 대해 “독립된 조국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역사적인 첫 선거는 그나마 남한에서만 반토막짜리 선거였고, 그것마저도 우리끼리의 자주적인 선거가 아니라 ‘유엔 한국위원회의 감시 하에’라는 단서가 붙어”(281쪽) 외세에 편승한 분단세력의 책동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남한단독정부 부통령에 선출된 전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임시의정원의원 등을 역임한 이시영에게서 감찰위원회 위원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내가 반쪽짜리 정부에 들어가 일을 한다면 그것은 민족적인 죄를 범하는 것”(286쪽)이라며 단호히 거절했다.



04 한국혁명여성동맹 창립 기념(1940.6.17.) :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정정화 여사이다. ©독립기념관



05 3·1유치원 추계 개학 기념사진(1941.10.10.): 뒷줄 맨 오른쪽이 정정화 여사이다(중국 중경). ©독립기념관

역사적 가치

이 책은 우리 민족해방운동사에서 갖는 역사적 가치는 사료적인 면과 민족의 완전한 통일을 추구한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장강일기는 정정화라는 한 여성이 26년간 임시정부 내부에서 직접 민족해방운동에 참가해 체험한 임시정부 안팎의 객관적 실상과 활동을 흥금 없이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 민족운동사 서술이 주로 일제 당국이 압제자의 시각에서 작성한 우리 독립운동의 분열성과 무의미성을 부각시키는 정보문서에 의존함으로써 민족해방운동의 진실이 올바르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정화는 “임정의 내부사정이 어떠한가 임정의 주인이든 식객이든 그들이 과연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사실 그대로를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국내나 국외를 통틀어 항일투쟁의 대열에 섰던 단체나 개인에 대한 연구는 보다 세세하고 사소한 것 까지도 모두 포함되어야만 비로소 단체의 성격이나 개인의 활동노선이 바로 밝혀지리라 믿는 까닭에 국외의 광복전선에서 26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내 소박한 자격”(9쪽)에서 회고록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좌우를 망라한 전체 민족해방운동세력의 주체적 역량의 통일과 결집에 의해서만 민족해방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정정화의 민족해방운동관이 회고록 마다마다에 울곧이 배어 있다. 그녀는 “항일투쟁의 대열에 섰던 사람은 보수적이든 사회주의든, 혹은 공산주의 성향을 지녔든 간에 동시에 다 민족주의자”(126쪽)라는 입장에서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독립운동세력의 통일을 지향했다.

이러한 정정화의 지향은 1941년 대일선전포고를 한 임시정부가 1942년 화북지역의 조선의용대도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에 편입하고 민족혁명당까지 참가한 통합임시정부를 구성해 나가며 이루어 졌다. 나아가 1944년 4월에는 중국 관내지역 독립운동세력 전체가 참가하는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06 상해 임시정부의 여인들 : 정정화, 엄항섭의 부인, 민필호 어머니 이현경 등
©독립기념관

“

장강일기는 정정화라는 한 여성이 26년간 임시정부 내부에서 직접 민족해방운동에 참가해 체험한 임시정부 안팎의 객관적 실상과 활동을 흥금 없이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데 역사적 가치가 있다.

우리 민족운동사 서술이 주로 일제 당국이 압제자의 시각에서 작성한 우리 독립운동의 분열성과 무의미성을 부각시키는 정보문서에 의존함으로써 민족해방운동의 진실이 올바르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이는 1940년대 전반기 중국관내에서 임시정부로 독립운동세력의 통합이 일단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된 임시정부가 만주·국내·미주·러시아 등지의 민족해방운동전선으로 통합을 확대하려는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제가 패망하면서 이 연합전선세력이 연합국의 승인을 받아 연합국의 일원으로 직접 일제로부터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 정정화가 지향한 민족해방운동전선의 통일체조직 → 연합국의 승인 → 연합국의 일원으로 직접 일제와의 독립전쟁 수행과 해방이라는 노선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정화는 ‘해방’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왜놈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나서 ‘우리가 이겼다. 나를 찾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232쪽)라고 민족의 앞날을 예견했다.

셋째, 통일민족국가 수립은 좌우연합전선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운동을 벌인 모든 세력이 통합을 이루어 민족해방을 이루지 못한 결과, 한반도 남북을 각각 점령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었다. 그리고 그 분단은 동족상잔의 6·25전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이 책은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에 직접 참가한 정정화의 눈으로 현재의 분단체제 극복과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N**

필자 소개

수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국민대표회 전후 민족운동최고기관 조직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